

민주 '빅3' 마이웨이... 주도권 경쟁 가속

지도부 무상복지 둘러싸고 파열음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회의 불참

집단지도체제 도입 당시 우려했던 민주당 지도부내 파열음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상복지 문제를 놓고 지도부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당내 분란이 확산하고 이에 따라 일부 최고위원들의 '마이웨이'도 가속화하는 흐름이다.

먼저 무상복지 정책 발표로 촉발된 중세 논란을 둘러싸고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손 대표가 연일 '중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부유세 신설 카드를 꺼내든 정 최고위원은 "복지는 돈이다"는 논리를 내세워 제동을 걸고 있다.

무상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격인 '보편적 복지 특위' 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는 정동영 최고위원과 정세균 최고위원간 전선이 형성됐다.

애초 별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정세균 최고위원이 후보로 거론됐으나 복지 특위 설치안을 처음 제안했던 정동영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 의지를 보이면서 인선 작업이 열흘 가까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이 아직도 먼 시점에서 이처럼 지도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복지를 둘러싼 당안팎의 논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차기 대권 경쟁을 앞두고 입지를 넓히려는 '빅3'의 주도권 경쟁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집단지도체제 도입에 따라 어느정도 예고돼 온 것이지만 여권과 투쟁을 하고 있는 시점이란 점에서 아직은 빠르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또 건전한 논의 과정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 논쟁이 당내에서 격화할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을 부각,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민주당 대선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최고위원이 독자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손학규 대표의 전국 순회 일정에 맞춰 매주 2차례씩 지방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무더기 불참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이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전체 최고위원 9명 중 손 대표와

이인영 김영춘 조배숙 최고위원 등 4명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경우 지역 현안인 전주 버스 파업 관련 일정과 복지 관련 외부 강연 등으로 3주째 지역 최고위원회의에는 불참했다.

지도부 일각에서 농반진반으로 "성원미달일 경우 사무총장도 최고위원 정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손 대표의 구심점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핵심인사는 "주요 이슈에 대한 내부 논쟁은 당이 건강하다는 반증"이라며 "어차피 지방 최고의 경우 모두 참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주요 현안별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조율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과학벨트 호남 유치 '김황식 역할론' 관심

"공모 절차 거치지 않겠다" 발언에 지역민 기대감 높아

광주시와 전남도가 과학벨트(국제과학기술벨트)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은 김 총리가 지난 25일 자유선진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의)공약은 법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냐"라고 밝힌 것 때문이다.

이는 정부 직권으로 과학벨트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총리가 사회 갈등 최소화 등을 명분으로 정부의 과학벨트 최종 입지 선정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에 유리한 흐름이 형성되도록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 출신의 김 총리가 이명박 정부 들어 극도의 소외감을



김황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미래니엄포럼에서 최근 복지논쟁과 수사절차 등과 관련 정치권과 검찰에 쓴 소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론'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김 총리가 과학벨트 입

지 선정과 관련, 지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영남 정권의 들러리 전남 총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강은태 광주시장은 지난 25일 김 총리를 만나 과학벨트 광주·전남 유치의 당위성과 함께 과학벨트 선정을 기대하는 지역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따른 후폭풍이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총리가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 총리가 전남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김 총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 총리가 전남 출신인데다 사안의 폭발성이 크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중립적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시민 "정권교체 확실히 준비 하겠다"

참여당 전대 출마 선언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26일 "2012년 의회권력과 정권교체를 실현할 준비를 확실히 하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유 연구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드는 것만이 우리당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3·12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또 글에서 "우리당이 우리당의 이름으로 이 일(정권교체)을 해내자"면서 "국민이 아직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른 진보개혁정당과 함께 해내도록 하자"고 밝혔다.

참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29일

까지 당비납부黨員으로부터 대표추천을 받은 뒤 다음 달 1~9일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유 연구원장 외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도 당 대표 후보로 일부黨員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나 아직 출마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참여당 내에서는 유 연구원장이 단독 출마,黨員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당 대표로 추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당 탈당 임종인 민주당 복당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임종인 전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당에 복당을 신청했으며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복당 허가 의결을 정해 이날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구 여권 정계개편이 진행됐던 2007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을 가장 먼저 탈당한 뒤 같은 해 4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 단식농성을 했으며 2008년 4월 총선과 2009년 10월 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경기 안산에 출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도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모집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광주 10명, 전남 24명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선거부정감시 역할을 한다.

지원자는 지원서 서식을 시·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또는 시·군·구 선관위로 직접 방문해 교부받아 작성한 뒤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min78121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062-382-7607),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062-375-1390)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청주시 희망대장정 토론회

26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대장정 시민토론회'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 토론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2월 임시국회 등원론 고개

일부 의원 공감속 최고위원 부정적... 진통 예고

민주당 내에서 2월 임시국회 등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여전히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맞선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등원 논의가 공식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 의

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원이 "2월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자리에는 원내부대표, 상임위원장 등 소속 의원의 20%가량인 1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날 회의에서는 "등원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회의원이 국회를 하는데 조건을 걸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동시에 제

기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등원 명분과 관련,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으나 요구 관철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구제역 등 현안을 앞세워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한나라당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두고 명분 찾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2월 국회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지도부 내에서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우리는 (지금

도) 원내의 병행투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 최고위(31일)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등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다만 소속 의원과 달리 최고위원들은 강경투쟁론의 기류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장외투쟁 중인 손학규 대표도 등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 핵심 측근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면 그동안 장외에서 날치기된 예산안을 되돌리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품! 정량!! 난방유

SK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 한드럼당 4천원~6천원 할인
- ▶ OK캐쉬백적립

산수오거리에서
자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

40대 주부가 새롭게 만든

빅차게 '큰 놀' R

아내가 개발한 큰놀이 인기폭발이다. 그동안 기대가 크던 실망이 크듯 큰 기대를 걸고 이것저것을 고가로 사서 사용해 보았으나 사용하는 것마다 번번히 실패하여 아까운 돈만 날려 버리고 허탈감 속에서 불신감만 쌓여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큰놀은 보고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듯이 혹시나 하고 이번에도 반신반의하여 사용해 보았더니 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사용즉시 불균 일어서며 장시간 지속되니 꿈인지 생인지도 청춘으로 돌아간 듯 부들함을 느낀다.(심층신안 특허 제 02-0441616호)는 보지 않고 구매하여도 피부같은 촉감에 달팽이 모양같은 실리온이 처음 보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사용해 본것 중에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만족도는 제일 높아 이제야 오랜 숙원에 꿈을 이룬 것 같았다. 주사나 약도 아니고 반지같은 링이나 진공 펌프도 아닌 신제품 큰놀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 장없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폭발이다.

* 기구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회춘의 꿈, 파워마카100% 분말로 대신하면 좋습니다. (30일분 90,000원 / 60일분 150,000원)

* 구매시 핫나경 서적이 없는 것은 유사품입니다. (통 길이 증명)

상담 1577-4101
전화 010-8952-4114

농협 1110-4114-18 (주)글로벌햇

식사전 **독소무** 1봉씩!

“배변이 힘들고 속이 더부룩하고 까스가 차고 소화가 안된다”

삼성제약 '독소무' 5일 섭취후, 99.9%몸의 변화 직접확인 가능!

장(腸)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오늘날 장(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장(腸)내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 건강한 장, 튼튼한 장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제약 '독소무' 5일간만 드셔보면 "속" 편안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배변이 속!! 까سو 속!! 요즘 '독소무' 덕분에 살 맛 납니다. 흔히 잘먹고, 잘싸고, 잘자면 비교적 건강하다고 말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 불규칙한 식사때문에 설세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요즘, 매일먹는 삼성제약 '독소무' 때문일까! 그렇게 더부룩하던 속이 막힘없이 후련할 줄이야! '독소무' 먹길 정말 잘했네!

삼성제약 독소무/장(腸)기능성 제품으로 식약청에서 인정하였습니.

살기힘, 까스명수, 우항성원으로 알려진 삼성제약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독소무'는 우리몸에 유익한 이눌린, 현미호분총배아미강 등 49종류의 100% 자연천연원료로 인체시험을 통하여 식약청에서 공식 인정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5일만에 끝낸다” 효과 없으면 ‘환불’ 해 드립니다.

삼성제약 '독소무'는 심여를 기울여 연구개발한 고급제품으로 5일간만 드셔보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직접 몸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효과 보장으로 5일간 드셔 보시고 효과가 없거나 불만족시 당일 즉시 100%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 보증서 발급, 택배비 회사 부담)

제품문의 : 1577-2326 (본사)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독소무**